

강원도 영춘 맷기:
자연친화적인 관광명소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이 돋보이는 흥천군

문화인류학과 202313948 김현종

<목차>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기대효과

II. 본론

1. 흥천의 자연환경 특징
 - 1-1.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개요
 - 1-2. 주요한 생태 자원
2. 흥천의 자연친화적 관광명소
 - 2-1. 관광명소의 자연친화적 요소
 - 2-2. 관광명소의 우수 사례
 - 2-3. 환경 파괴로 인한 관광명소의 훼손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 3-1. 기존의 관리 체계 및 환경 보전 정책
 - 3-2. 향후의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

III. 결론

1. 흥천의 자연환경 가치의 재발견
2. 나에게 흥천과의 영춘 맷기란?

I -1. 연구 배경 및 목적

홍천은 필자의 외할머니 댁이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자주 방문하였던 지역이다. 외할머니께서는 홍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중 가장 많이 듣고 기억에 남는 말씀은 “홍천에 산, 계곡 같은 곳이 엄청 많아.”, “홍천만큼 넓고 깨끗한 곳이 없어.”였다. 매우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의 이러한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인지 홍천의 자연환경에 관심이 생겼고 홍천에 방문을 할 때면 홍천의 자연 풍경을 주시하여 보았다.

실제로 홍천에는 한국의 100대 명산 중 하나인 팔봉산부터 홍천의 중요한 수자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홍천강, 홍천의 대표 계곡 중 하나인 가령폭포 등의 자연환경 명소가 매우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중 가령폭포에는 직접 방문하였던 바가 있는데 폭포의 웅장한 모습과 물줄기의 시원함을 마주한 그때의 기억은 실로 말할 수 없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강원도를 방문할 때 빈번하게 볼 수 있는 홍천의 중요한 수자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홍천강은 그 기능과 더불어 자연환경으로서의 웅장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히 깊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자의 홍천과 관련된 어릴 적 배경과 홍천의 자연환경 명소를 직접 마주했던 기억을 발판삼아 이번 연구에서 홍천의 자연환경 및 자연환경 명소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I -2. 연구의 기대효과

해당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필자가 기존에 인식하고 있던 홍천의 자연환경에 대해 더욱 확장된 지식을 갖추어 홍천의 자연환경 및 환경구조를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홍천의 자연환경 명소가 단순히 인상적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연환경 명소로서 어떻게 기능하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연환경을 단순히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전해야하는 환경적인 자원으로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자연친화적인 관광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천군이 속한 강원도가 흔히 ‘오지’로 인식되기보다는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홍천군이 지닌 자연환경의 요소가 현재에 미치는 영향력과 앞으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나아가야 할 점을 새롭게 확인할 수 있겠다.

끝으로 ‘강원도 영춘 맺기’라는 의미가 주어진 만큼 홍천이라는 지역이 연구가 끝난 후 나에게 진정 어떠한 의미로 다가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품은 채 연구에 임할 것이다. 또한 필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계자를 대면으로 접촉하여 조사함으로써 연구 내용의 풍부함을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것과 지역 답사를 수행함으로써 답사의 과정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II -1. 홍천의 자연환경 특징

1-1.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 개요

1)홍천군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내륙 산간 지역으로, 약 1,820km²에 달하는 광대한 면적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넓은 규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넓은 면적은 지역 내의 다양한 지형과 생태 환경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며 동서로 길게 뻗은 지형 구조와 전반적으로 산악 지형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홍천군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 전체 면적의 약 87%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울창한 숲과 풍부한 자연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청정 지역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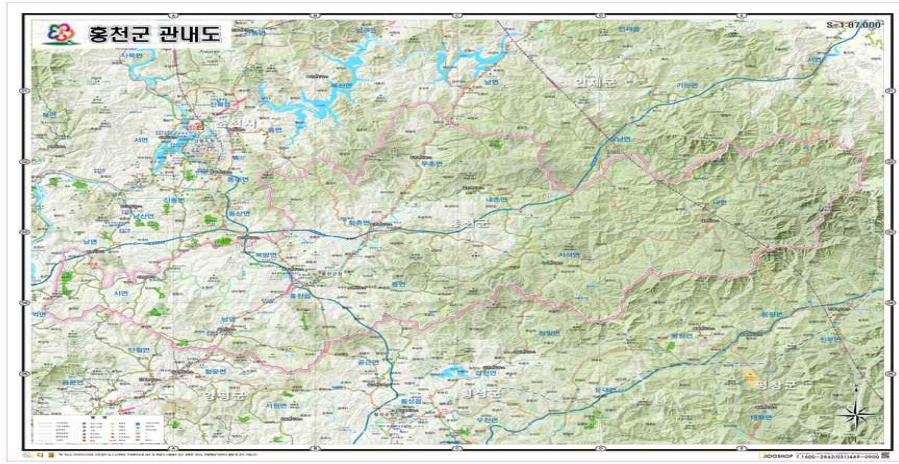
지리적으로 홍천군은 동쪽으로는 평창군, 서쪽으로 경기도 가평군과 양평군, 남쪽으로 횡성군, 그리고 북쪽으로는 춘천시와 인제군과 접하고 있으며 강원도의 내륙과 수도권권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있다. 특히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수도권까지의 이동 소요가 낮은 편이다. 홍천군청에서는 이를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청정 자연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위치적 특성은 대규모 도시 개발 압력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도 관광 및 휴양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홍천이 지리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커요. 87% 이상이 산림입니다. 그래서 넓은 면적으로 인한 공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자연환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천이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접근성이 엄청 좋아졌어요. 동서울까지 가는데 1시간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장거리로 여행을 가기는 부담스럽지만, 자연관광을 하고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홍천을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당일에 짧게 여행하거나, 긴 이동 시간이 부담스러운 관광객들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관광지이지 않을까? 하는 입장입니다.”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

1) - 홍천군청, 홍보마당, 홍천군청 웹사이트



출처: 홍천군 지도샷

<사진 1 - 홍천군의 지형 및 산림 분포>

1-2. 주요한 생태 자원

2)홍천군의 자연환경은 산림과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산지의 경우 가리산, 공작산, 팔봉산 등의 다양한 산지가 홍천군 전역에 분포해있으며 이들은 단순한 지형적 요소라는 의미를 넘어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적 기반을 갖춘다. 특히 활엽수림과 침엽수림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산림 구조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경관을 형성하며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맑은 공기를 제공해줌과 동시에 수자원 보전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수환경 측면에서는 홍천강이 지역 자연환경의 중심축을 이룬다. 홍천강은 홍천의 관광명소이자 한강 수계에 속하는 주요 하천으로, 태백산맥에서 발원하여 홍천군 전역을 가로질러 흐르며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홍천강은 팔봉산과 가령폭포와 같은 주요 관광명소에 영향을 미친다. 강의 지형 변화와 물줄기가 강변 경관과 계곡과 폭포를 형성하여 계곡 관광지의 토대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팔봉산은 여덟 개의 암봉이 홍천강을 따라 늘어선 독특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홍천강의 굽이치는 물줄기와 팔봉산의 암봉이 어우러진

2) - now news, 산과 강이 빚어낸 한 폭의 그림, 홍천 팔봉산, now news, 2025년 9월 8일자.
- 홍천군 문화관광, 홍천관광, 홍천군 문화관광 웹사이트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따라서 산림의 분포와 홍천강의 존재는 관광명소들의 관광적 가치를 미적으로나 실용적으로 높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홍천군의 홍천이 넓은 홍의 내 천이에요. 그래서 넓은 강이 흐른다는 뜻을 지고 있는 만큼 저희 지역에서는 홍천강이 매우 중요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강의 강 줄기를 따라 산도 같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산과 강이 같이 어우러져 있다 보니까 홍천에서는 되게 수려한 자연 광경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



<사진 2 - 홍천강(답사 중 직접 촬영)>

II -2. 홍천의 자연친화적 관광명소

2-1. 관광명소의 자연친화적 요소

3)홍천군의 관광 자원은 지역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고 인위적인 개발을 지양하여 이를 방문객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지속 가능한 생태 관광’의 모습을 보여준다.

3) - 홍천군청, 홍천 군기본 계획, 홍천군청 웹사이트
- 이동원, 홍천군 관광종합 개발계획 보고서, 학술연구정보서비스

홍천의 관광명소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자연친화적 요소들은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서술할 수 있다.

첫째, 지형적 원형을 보존하는 ‘저간섭 개발’ 방식이다. 홍천은 굽이치는 하천과 험준한 산악 지형이라는 지형적 한계를 오히려 관광의 핵심 요점으로 승화시켰다. 대규모의 토목 공사 대신 기존의 계곡과 숲길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탐방로를 조성하여 인공 구조물에 의한 생태계와의 단절을 최소화시킨다. 이러한 방식은 방문객들이 인위적인 조형물이 아닌 수만 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환경을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자연 본연의 생동감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둘째, 포괄적인 치유적 환경 제공이다. 홍천의 관광자원은 단순히 시각적인 관광을 넘어서 청각, 촉각, 후각을 아우르는 보다 입체적인 자연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소음이 차단된 깊은 산간 지역의 평온하고 고요한 환경은 오늘날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정서적 안정과 더불어 ‘디지털 디톡스’ 역할을 하는 천연의 휴식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을 인간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돕는 실용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지역 상생과 환경 보존이 공존하는 ‘생태적 개방 정책’이다. 홍천은 특정한 시기에만 숲을 개방하거나 생태계 보호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면서도 그 가치를 거주자 및 관광객에게 공유하는 운영 방식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오늘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산업화를 경계하고 자연의 순환 주기를 존중하는 태도로 관광객들에게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2-2. 관광명소의 우수사례

4)홍천군의 관광명소들은 앞서 설명한 생태적 자원 요소와 자연친화적 요소들을 포함하여 단순한 자연경관 제공을 넘어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수타사 계곡은 자연 지형을 최대한으로 보존한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계곡의 지역은 계곡을 포함해 산림과 사찰이 결합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는 지형의 원형을 유지하는 ‘저간섭 개발’ 방식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숲의 향기, 흙길의 촉감, 계곡의 물소리 등의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는 환경으로서 방문객에게 자연속에서의 심리적 안정과 휴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에서 수타사 계곡은 치유형 관광과 자연 보존이 어우러진 우수한 사례로 평가된다.

4) - 홍천군청, 홍천관광, 홍천군 문화관광 웹사이트
- 한국학중앙연구원, 홍천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홍천군청

<사진 3 - 수타사 계곡>

둘째, 용소계곡은 수타산 계곡과 마찬가지로 지연의 원형이 잘 유지된 계곡으로 저간섭 개발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곳은 기암괴석과 깊은 소, 맑은 물이 어우러진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공 구조물의 개입이 비교적 제한적이다. 이러한 환경은 방문객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고요한 분위기와 청정한 공기 등을 통해 오감 기반의 자연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상업적 개발이 제한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관광 활용과 자연 보존이 공존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출처: 홍천군청

<사진 4 - 용소계곡>

셋째, 홍천의 은행나무숲은 계절형 자연 관광지로서 독특한 경관 자원을 사진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곳은 특정 기간에만 한정하여 개방되는 숲으로 가을철의 황금빛 은행나무 경관이 특징이다. 자연경관 자체를 중심으로 관광이 이루어지고 인위적으로

과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방문 시기와 자연 조건에 따라서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시간 기반 관광지'라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일정 기간에만 개방하는 운영 방식은 자연 보호와 관광 이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출처: 홍천군청

<사진 5 - 은행나무 숲>

넷째, 팔봉산은 자연의 지형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지로 하천과 산악 지형이 결합된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팔봉산의 등산로는 자연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성되어서 팔봉산 역시 저간접 개발의 특징을 보이며 방문객은 등산 과정에서 다양한 자연적 요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개발이 비교적 제한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이는 곧 환경 보전과 관광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이와 더불어 산림과 하천이 결합된 환경은 시각적인 요소 외에 다른 경험을 동시에 제공하여 자연 체험의 질을 높인다고 할 수 있다.



출처: 홍천군청

<사진 6 - 팔봉산>

“용소계곡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연 그대로예요.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 그대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는거죠. 이렇게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려고 노력하여서 관광명소들의 많은 아름다운 특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명소 관람을 통해 자연에서 디지털 디톡스 같은 힐링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죠.”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

2-3.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관광명소의 훼손

홍천의 자연환경을 이점 삼아 생겨난 관광명소들은 그 의의를 돋보이고 있지만, 외부의 인위적인 자연환경 파괴로 인해 관광명소들은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는 피해는 유동 인구가 밀집하여 계곡과 강변 일대의 수질이 악화되는 문제이다. 5)홍천강변과 6)수타사 계곡에서는 성수기마다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서의 불법 취사와 차박, 야영 행위가 수십 년간 고질적으로 반복되어 행락객들이 무단으로 투기한 음식물의 기름 등과 자체적인 쓰레기는 여름철 고온 현상과 맞물려 부패하며 이는 곧 관광명소의 훼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락 오염에 더하여, 배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 사업과 인위적인 관광 자원화 사업은 명소들의 생태적 자정 능력 약화, 즉 자기 회복력을 마비시킨다. 7)수타사 계곡의 경우 인근 테마공원 조성 과정에서 상류 계곡수를 과도하게 전용하면서 본류의 수량이 급감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수온 상승과 이끼 번식을 심화시켰다. 또한 8)용소계곡 유역 인근과 팔봉산 상류 지류에서 행해진 골프장 건설은 잔디 관리를 위해 살포된 농약 성분의 유입과 더불어 막대한 양의 미세 돌가루와 토사를 발생시켰다. 이 흙탕물과 석분이 강바닥에 가라앉아 모래와 자갈 사이의 틈새를 메워버리는 층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슬기와 수생물의 산란처가 파괴되었고, 결과적으로 하천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줄줄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던 바가 있다.

“관광객분들이 오시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시거나 취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 제재를 정기적으로 해도 몰래 하시는 관광객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좋지만, 흔히 ‘과잉관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작용과 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산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취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산불 문제도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고요. 계곡 내에서의 불법

5) - MBC news, “캠핑하고 버렸다.. 홍천 강가에 쓰레기”, MBC news, 2026년 4월 30일자.

6) - 강원일보, “수타사 주변 계곡 불법 캠핑장 전락”, 강원일보, 2010년 8월 1일자.

7) - 더뉴스24, “수타사 농촌 테마공원 총체적 난국.. 예산낭비의 전형”, 더뉴스24, 2019년 7월 22일자.

8) - 연합뉴스, “홍천 쾌석 1리 주민, 골프장 주변 환경오염 주장 반발”, 연합뉴스, 2016년 4월 8일자.

평상 설치 문제도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

한편, 해마다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관광명소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9)은행나무 숲은 ‘단풍 기간의 축소’ 문제를 겪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여름철 폭염이 초가을까지 길어지면서, 가을이 되어도 기온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아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드는 시기가 매년 눈에 띄게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숲 전체의 경관이 과거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는 추세이다. 숲의 한쪽은 아직 푸른 초록빛을 띠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이미 단풍이 들어 떨어지기 시작하는 등, 전체적인 풍경의 균형이 깨지고 관광명소의 완성도가 크게 떨어지는 피해를 보고 있다.

또한 여름철에 지속되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은 은행나무 잎의 외형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린다. 수분과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 나무들은 잎의 끝이 갈색으로 타들어 가거나 매마르는 현상을 겪게 된다. 이로 인해 가을이 되어도 맑고 깨끗한 노란색이 아닌, 거뭇하게 얼룩지거나 바랜 듯한 탁한 색으로 변하여 숲의 시각적인 가치가 질적으로 감소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피해는 기후변화로 인해 가을철 늦은 시기에 기습적으로 몰아치는 폭우와 강풍이다. 온난화로 인해 단풍이 물드는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 잎들이 충분히 물들기도 전에 겨울철의 강한 찬 바람이나 때 이른 비바람을 맞이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 때문에 노란 단풍의 절정을 보여주기도 전에 수많은 잎이 한꺼번에 떨어져 버려서 숲이 초라하게 변해버리는 허무한 상황이 반복된다. 결국 지구온난화는 홍천의 은행나무 숲이 가진 고유한 자연 관광적 가치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은행나무 숲이 정말 멋진 자연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요즘 지구온난화가 심각해져서 기후변화가 크다 보니까 너무 더워지면 은행이 빨리 안 익고 서리가 내리면 은행잎이 다 떨어져요. 때문에 미리 은행나무 숲 사진을 보고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기대하던 풍경이 아니어서 많이 실망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홍보하고 있는 은행나무 숲을 볼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구경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

II -3. 자연환경의 지속가능성

9) - MBC news, “한창 노랗 시기인데”.. 단풍 명소 ‘홍천 은행나무 숲’도 ‘지각단풍’, MBC news, 2024년 10월 25일자.

3-1. 기존의 관리 체계 및 환경 보전 정책

홍천군에서는 위와 같은 훼손 사례를 막기 위해 보호 관리 체계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먼저 10)여름철 성수기마다 반복되는 홍천강변과 수타사 계곡의 불법 야영, 취사, 차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홍천군은 상시적으로 단속을 실행하고 있다. 주요 행락지 일대를 ‘취사 및 야영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전담 감시원과 단속반을 배치하여 무단 쓰레기 투기와 불법 차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와 함께 관광객들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이동식 화장실과 쓰레기 수거함을 추가적으로 배치하여 오염물질이 직접적으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치된 쓰레기를 신속하게 수거하는 ‘쓰레기 정화 사업’을 매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테마공원 조성 등으로 인한 수타사 계곡의 자연 훼손 문제와 상류 개발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수자원 관리와 생태 복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온 현상 및 수량 부족에 따른 수온 상승과 이끼 번식을 막기 위해 11)‘제 3차 홍천군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곡수의 과도한 전용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점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갈수기에도 하천의 최소 유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류 지역의 물 관리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한편, 대규모 공사와 농경지 유출로 인한 토사와 석분이 강바닥을 덮어 다슬기 및 수생생물의 산란처를 파괴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탁수 유입 저감 시설 확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홍천강 상류 유역에 대형 침사지 등을 갖춘 ‘12)자운지구 흙탕물저감 에코빌리지’를 준공하여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더하여 팔봉산 상류 등의 배후 지역에서 행해지는 골프장 건설 및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환경영향 평가 협의와 사후 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13)특히 잔디 관리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이 지류를 타고 홍천의 본류로 유입되지 않도록 골프장 내의 유출수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빗물에 의해 유출되는 오염물질 저감 시설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돌가루와 토사가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침사지와 오탃방지막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등 개발로 인한 생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10) - 홍천뉴스투데이,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특별단속 실시”, 홍천뉴스투데이, 2026년 3월 27일자.
11) - 국회신문, 홍천군, 제3차 홍천군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이행점검 자체 평가 보고회 개최, 국회신문, 2026년 4월 28일자.
12) - 연합뉴스, “홍천군, 흙탕물저감 에코빌리지 시범 조성사업 준공, 연합뉴스, 2023년 5월 3일자.
13) - 홍천인터넷뉴스, 홍천군 자운지구 흙탕물저감시설 대형침사지 준설, 홍천인터넷뉴스, 2023년 6월 14일자.



출처: 홍천뉴스투데이

<사진 7 - 계곡 내에서의 단속 시행 모습>

“관광지의 자연을 훼손하는 수질 오염이라든지, 쓰레기 문제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말고 지정된 곳에 잘 버려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강가에서 불을 피우는 문제도 일반적으로 관광객분들이 ‘강가에서 불 좀 피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또 그렇게 간단 문제가 아니잖아요. 불을 피우게 되면 피운 곳에 재가 남아있고 요리해먹은 기름이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게 다 강가로 흘러 들어가거든요. 물론 이 문제보다 더 큰 문제들도 있지만, 앞서 말한 문제들은 관광객분들이 관점을 다르게 해서 의식을 좀 갖춰가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같이 가꿔나갔으면 좋겠어요.”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

3-2. 향후의 정책적 및 실천적 노력

홍천군 자연환경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관내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유림 자원을 보전 중심의 친환경 생태 관광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다. 기존의 단순 단속이나 시설 확충만으로는 수타사 계곡, 팔봉산, 홍천강, 용소계곡 등으로 이어지는 광활한 산림과 하천 면적을 완전히 통제하는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관광명소는 대부분 국유림과 인접해 있거나 국유림 내부의 생태축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연적 자원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실제 14)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홍천군은 행정구역의 약 87%

14)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개인 면담 인터뷰, 2026년 5월 22일 시행.

가 산림이고 국유림 비중이 높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현재 북부지방산림청 및 홍천국유림관리소와 함께 '15)산림 발전 지역 협의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실무 협의체를 발판 삼아 국유림 자원의 보전과 주요 관광명소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밟아나가야 한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지자체 단독의 일반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산림청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과의 다자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수타사 계곡이나 용소계곡 등 환경 부담이 우려되는 주요 유역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이용 기준과 제도적 관리 기반을 선제적으로 정비해야한다. 이와 맞물려 실천적 측면에서는 홍천강이나 팔봉산 등의 주요 명소 관광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방문객과 지역 사회가 현장 보전 활동에 유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을 활성화하여 구성원 모두가 책임감을 공유하는 자율적인 자연환경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III. -1. 홍천의 자연환경 가치의 재발견

오늘날 홍천의 자연환경은 단순한 보존과 관리의 대상을 넘어서 현대 사회의 피로를 치유하는 핵심 자산으로 그 가치가 중요하게 조명되고 있다. 홍천은 관내 면적이 국유림으로 이루어진 풍부한 산림 자원 지역이자, 수려한 명소를 곳곳에 품고 있는 청정 지역이다. 인위적인 개발을 지양하고 생태계 본연의 순수성을 유지해 온 이러한 환경은,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원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안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풍부한 국유림과 명소들을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휴양 관광을 개발하려는 노력은, 홍천을 스쳐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깊이 머무르며 회복할 수 있는 '휴양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만든다. 이처럼 홍천의 자연환경은 현재 뿐만이 아닌 미래의 자연 휴양을 원하는 이들의 욕구에 맞추어 생태문화적 가치를 끊임없이 확장해 가고 있으며, 우리가 온전히 보존하고 가꾸어 미래 세대에게 전해야 할 가장 소중한 미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천의 자연환경이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잘 보존한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관광을 증가시키기 위해 케이블 카를 설치할 수 있지만,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연결하는 선이라든지, 운영될 때 생기는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 경관을 감상할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관광의 편리함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할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서로의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인위적인 설치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5) - 로이슈, 홍천군 '제4회 홍천군 산림 발전 지역협의회' 개최, 로이슈, 2026년 3월 27일자.

“홍천 관광객분들이 관광명소에 방문하신다면 정말 여기서 느낄 수 있는 자연에서 주는 치유력을 통해서 편안함을 느끼고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천군청 관광문화과 담당자 -

III. -2. 나에게 홍천과의 영혼 맺기란?

이번 ‘홍천과의 영혼 맺기’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필자에게 홍천은 일반적인 연구 대상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다. 연구 지역으로 강원도의 지역 중 홍천을 선택할 당시에는 “산과 계곡이 많고 참 깨끗한 곳”이라던 외할머니의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그리고 어릴 적 마주했던 가령폭포나 홍천강을 보며 느꼈던 추억의 감정이 계기가 되어 홍천이라는 지역을 선택하여 시작한 탐구였다. 하지만 영혼 맺기를 위해 홍천군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직접 홍천을 둘러봄과 동시에 계획한 주제를 위해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진행해보니 그동안 스쳐 지나가며 보았던 홍천의 자연이 얼마나 가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 깊이 체감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전체적인 홍천 답사를 계획하고 직접 실행함(2026. 05. 22. 시행)으로써 서론에서 예상했던 답사에 대한 연구의 기대효과를 나름의 방식으로 잘 충족시켰다고 생각하였고 답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자료는 보고서의 생생함을 더해주는 매우 가치 있는 실제성 자료였다. 이에 더하여 홍천군의 지리적 접근성과 풍부한 가치가 느껴지는 자연적 관광명소, 그리고 광활한 산림과 풍부한 수자원 같은 자연환경 요소들이 현재 우리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올바르게 고려하여 강원도(홍천)가 흔히 오지로 인식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필자에게 홍천과의 영혼 맺기란 무엇보다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바꾸어 주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가졌고 땅의 87% 이상이 산림이라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인위적인 개발을 줄이고 자연 본래의 모습을 지키려는 홍천군의 노력이 정말 인상 깊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계곡의 쓰레기 투기 문제, 상류 개발로 무너지는 하천 생태계,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 본래의 가치있는 모습을 잃어가는 은행나무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매우 암담한 심정이 느껴졌다. 이를 통해 결국 필자의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홍천과 영혼을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홍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고 소비하는 ‘관광객’으로 남는 것이 아닌 홍천이 마주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함께 지켜나가야 할 ‘동반자’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 홍천군청

<https://www.hongcheon.go.kr/www/selectBbsNttList.do?bbsNo=48&key=104>

<https://www.hongcheon.go.kr/tour/selectTourCntntsWebView.do?tourNo=2018&pageUnit=6&pageIndex=1&searchCnd=all&key=2035&ctgry=6&searchShowAt=Y>

<https://www.hongcheon.go.kr/www/contents.do?key=293>

<https://www.hongcheon.go.kr/tour/selectTourCntntsWebList.do?key=2035&ctgry=6>

- 기타

https://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250908601006&wlog_tag3=naver

https://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6b4a196b69d9bee2&control_no=749aff33e7fb22f4&keyword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4461>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today/article/6819025_37012.html

<https://www.kwnews.co.kr/page/view/2010080100000000057>

<https://www.the-news24.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1>

<https://www.yna.co.kr/view/AKR20160408146100062>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49979_36515.html

<https://m.hongcheonnewstoday.kr/97226>

<https://www.assembly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75870>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139900062>

http://www.hcinews.co.kr/front/news/view.do?articleId=ARTICLE_00020469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03261030091454edd30pn2gj_12